

-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 촉구결의문 -

<금오산 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구미시
의회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에 대한>

龜尾市議會

- 금오산정상 미군통신기지 미사용 부지 반환 촉구결의문 -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수출200억불 달성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고 역동적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며 재충전의 터전인 수려한 영산 금오산을 시민의 품안에 돌려주고자, 금오산 정상에 설치되어있는 미군 통신시설의 조속한 철거 및 정비와 미사용부지의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오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방송 및 이동통신 5개업체의 무인통신기지 사용면적은 427평인 반면, 미군측이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6,832평이나 되는 과도한 면적이므로,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

하나. 뚜렷한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건물 및 폐구조물들은 자연보호 발상지인 도립공원 금오산의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금오산의 흉물이 되고 있으므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하나. 구미 시민의 자존심과 금오산의 상징인 정상 현월봉(976m)에 설치되어있는 미군 통신탑을 정상으로부터 약간 아래쪽으로 조속한 이전을 요구한다.

하나. 철거후 남은 시설물 및 향후 설치될 시설물들도 환경 친화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환경훼손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미군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위와 같이, 우리시 소유재산이면서도 미군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군에게 절대적 편의조항을 가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한.미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한.미 상호간에 평등과 우호적인 입장에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04. 3. 18

구미시의회 의원일동